

제 122 호

부활 대 축일

1975. 3. 30.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③3498)

1975년도

부활절 교서

친애하는 성직자, 수도자, 교우 여러분!
사순절 동안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고통스럽던 수난시기가 지나가고, 이제 영광스런 부활시기가 다가 왔습니다. 성주간의 고통과 죽음은 기쁨과 생명으로 변화되었고, 우리는 이제 절망을 통하여 한 없는 희망을 맞이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최초의 일요일인 주님의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제자들은 몸소 이 신비스런 체험을 했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 “그 분은 이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죽으신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직접 만나뵈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절망과 죽음이 바로 영광스런 부활로 나아가는 비결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새삼 희생과 봉사의 보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이 인생에게도, 끝 없는 삶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 2의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한 없는 축복이 온 인류에게 내리는 것을 느꼈고, 하느님께서 온 인류에게 베푸시는 엄청난 사랑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행언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에 넘쳐 「**알렐루야**」(하느님을 찬미하세)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는 **부활의 신비**이며, 교회가 온 인류에게 선포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며, 축하하기 위해서 부활 미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죄를 배고서는 모든 집에 있어서 우리와 똑 같으신”(레브. 4. 15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겨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그 분과 함께 죽었으니, 또한 그 분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신비를 신앙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작은 그리스도(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이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감사드리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한층 더 철저한 신앙심을 가지고 하느님 아버지께 깊이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생활로써 이 부활의 신비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정신 문화에 비해, 물질 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 말미암은 **비인간화(非人間化)**의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성행하고 있으며, **인간의 기본권**마저 유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지금 그 어느 때 보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빛과 희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충실하고자, 본인은 금년 **연두교서**를 통하여 「**1975년을 현대세계의 사목현장의 정신을 연구, 실천하는 해**」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목현장을 통하여 제시된 **새로운 신자상(信者像)**을 터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공의회는 “현대의 가난한 사람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번뇌”(사목현장 제1항)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 보고, 말과 실천으로써 실제로 사랑하며, 이로써 진리를 증명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의 신비를 다른 사람들과 서로 나누는 그것이다”(사목현장 제93항)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현세 사물에서 멀리 떠나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랬듯이, 각박한 현실 생활속에서도 사람들과 교락을 같이하며, 희생과 봉사의 생활을,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하느

(2면으로 계속)

(2) 순정이

〈1면에서 계속〉

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발전되어 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웃 사람들과 **연대의식(連帶意識)**을 가져야 합니다. 또 언제나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이웃과 **대화(對話)**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이웃에게 끊임없이 개방(開放)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자신을 깨신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여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생활이요, 이웃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기쁨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천애하는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교우 여러분! 본인은 교구장으로서 이번 부활절을 맞아,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 합니다, 「**금년도 교구 사목 세부지침**」에 따라, 현대 세계의 사목 현장 연구와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연수회와 목사회 등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상, 새로운 신자상**을 터득하고, 그것을 교회의 모든 영역에 있는 신자들이, 실제 생활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구배의연한 이기적인 신앙심을 분연히 털어버리고,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십니다. 그 분은 지금 당신의 교회가 이 세상의 참된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십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그 분은 전능하시며, 우리의 능력을 잘 알고 계시십니다. 그 분은 우리가 새롭게 깨신되기를 바라시며,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도 새롭게 변화되어, 기쁨과 희망을 되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십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수동적 자세를 벗어 버리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신자가 됩시다. 이제 우리는 미숙한 어린애 신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숙한 신앙생활**을 영예롭게 수행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알렐루야를 노래하며, 힘차게 일터로 나갑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 하시길 기원하며, 목자로서의 축복을 드립니다.

1975년 부활절

천주교 전주 교구장 김재덕 주교

* 이 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일당송** 주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당신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알렐루야

(2) 말씀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 10: 34a · 37-43 성서 p 290)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셨다.

□**종계송**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 감사하라, 그 좋은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이스라엘 가문아, 일컬으라 “영원하신 그 사랑”. ◎

□**제 2독서** (골로사이 3: 1-4 성서 p 460)

그리스도께서 천상에 계시니 천상것을 추구하라.

□**부속가** 파스카의 희생제 찬미를 드리라, 그리스도인아 어린양이 어미양을 살려냈음이여! 죄인들을 성부께 화해시켰나니, 죽음과 생명이 서로 겨루어 묘한 싸움을 하더니, 죽으셨던 생명의 주, 살아서 왕하심이여! 말하라, 마리아여, 무엇을 길에서 보았던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도 그의 무덤을, 부활하신 분의 영광을, 목격자 천사들을, 수전과 옷을 내 보았노라. 내 희망, 그리스도 다시 살아 계시니, 그 제자들 앞에서 갈릴레아로 가시리라 승리의 임금이시여, 우리를 어여뵈여 주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제물로 희생하셨도다. 알렐루야.

□**복음** (요한 20: 1-9 성서 p 258)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었다.

□**신자들의 기도**

1. 온 세상 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성 교회로 하여금 진실성과 진리라는 누룩없는 빵으로써 항상 축일을 지키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2. 주여,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을 보살피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직자, 수도자, 모든분이 부활의 충실한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

3. 주여, 이의 압박당하는 이와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고통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소서. ◎

4. 죽은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비오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

□**부활 감사송 제 1**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제물로 희생되었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없는 빵으로 축제지내사이다. 알렐루야.

* 순정이 산책 *



웃기네 웃겨 X 것 아냐?

※집단장 청부. 문의 환영※

금강 페인트사

〈고급도로. 방수액. 후판등〉

전화 ③0876 김 데레사

소방서 복편. 결핵협회 옆

※ 교형 여러분의 집 ※

개점 1주년 할인판매

삼성 T.V 대리점

삼성 전주 센터

T.V, 냉장고, 세탁기, 전축, 녹음기 등 전기용품 일절

박 영 욱(누시아)

전화 ② 5893

전주극장 입구 명보제과 옆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 지 사 진 관(2층)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빌 구 부부배차장 옆

전화 ③ 6544

□긴급진단□.....□긴급진단□.....□긴급진단□

전주교구 합동주보 **숲 정 이**

어떻게 할까요, 숲정이를?

□긴급동의□ □긴급동의□ □긴급동의□

전주시내 6개 본당이 본당 나름대로 주보를 내다가 하나로 묶어<숲정이>라고 이름지어 출판한 것이 1972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모두들 흐뭇하게 여겼습니다. 단합된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러다가는 1지구 4개 본당이 동참(同參)해준 것이 1973년 12월 23일이었죠. 더욱 기뻐했습니다. 이제 더 큰 힘이 나올 것 같아서.

예상은 집중했습니다. 전주교구 31개 본당 가운데 26개 본당이 한마음으로 일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명(名)과 실(實)이 한가지로 교구보(敎區報)의 모습으로 들어난 것이 1974년 11월 10일이었습니다. 모든 교형자매들께서 진심으로 축하해주셨습니다. 주교님을 비롯하여 신부님, 수녀님들께서도 커다란 기대속에서 격려해주시고 박수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변고입니까?
 <숲정이> 발행을 위해 수고하는 보광 출판사에 본당에서의 제납금이 563,855원입니다. 보광 출판사에 무어라고 말할까요? 계속 출혈을 하라고 할까요? 십자가는 보광출판사에 지우고 우리들은 부활의 영광만을 차지할까요? 그러다가 영영.....
 어떻게 할까요?

각 본당의 교형자매 여러분, 삼가 머리를 숙이고 호소합니다.
 사도회 임원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같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이겠습니다. 이 큰 일에 "손을 씻는" 빌라도가 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편집인으로서 너무나 답답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더욱 진안하심을 빕니다.

—편집인 한 상갑 드림

요심이 (88) 김병오



□시간안내□

십자가의 길 (성로신문) 170원
 갈매기의 집 580원

○원고 모집○
 200자 원고지 5매 정도.

○광고 모집○
 <숲정이> 편집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껏 봉사하겠습니다

*바로잡음(訂正)

120호 (75년 3월 16일자) 2면 우리의 병원, 성모병원기사 가운데 원장 염 광규 박사는 **염 광섭** 박사의 오기(誤記)이기에 바로잡습니다. —편집실

축 부활

1975년은 「현대 세계 사목 현장」 정신 연구 실천의 해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재덕 주교

알렐루야

교형자매 여러분 가정의 평화와
 역눌리고 버림받은 우리의 형제들께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사 제 일동
 수도자 일동
 평신도 사도직 제단체 일동

현대 광고사

*아크릴. 각종간판. 아취. 셀크인쇄

현대 DP사

*칼라흑백사진. 카메라수리

송 홍 섭(토마스)
 전화 ㉠ 9431

삼남극장과 전북신문사 비거리 중간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 을 태(베드로)

☎육교옆 중앙 시장봉
 (전화 ㉠4577)

☆교우들의 집☆

영명 T·V 수리센터

■텔레비전, 전축, 라디오
 중고품 매매, 판매, 수리
 ■출장비 무료

유 원 상(몬보스코)

전주 동부시장동 (전화 ㉠9138)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1. 본당 순회 교육 (4월 6일 오전 10시-오후 4시)-중앙, 전동, 복자 성당
2.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4월 16-18일, 가톨릭 센터, 회비 2,500원)
3. 제1차 여성 꾸르실료 (4월 22-25일, 가톨릭 센터, 회비 4,000원)
 - ① 참가를 희망 하시는 분은 본당 신부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본 교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여성 꾸르실료의 성공을 비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4. 김재덕 주교님, 아시아 주교회의에 참가 (4월 7일부터 2주간, 일본 동경)

아시아 주교회의에 참가하시는 주교님의 건강하심과 회의의 성공을 기도합니다,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대권
 ②3874 보좌신부 박종영
 사도회장 김영진

1. 사도회 월례회; 공식 미사 후 카운트다운
2. 삼회 월례회; 4월 5일 오후 3시
3. 성심 부녀회; 4월 7일 첫 금요일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회장 조해형

1. 성 안토니오 재속 형제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2. 사도회 월례회; 다음 주일
3.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인후동 박글라라 400원, 신원리 전데레사 300원,
 중노2가 이름없이 1,500원, 중노2가 강세시리아 5,000원
 금상리 신요셉피나 1,000원 남노 이아오스덤 1,000원
 남노 차마리아 1,000원 신교리 박마리아 5,000원
 인후동 백복선 500원
 주계 15,700원 누계 1,969,217원
4. 미사 시간 변경; <주일>아침 6시 <평일>저녁 7시 30분
 신축 성미 1말 4되 누계 252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박종환
 사도회장 김중환

1. 전당리 공소 특별미사; 4월 6일 12시
2. 성세자 환영회; 부활 공식 미사 후, 부활 특별 교리
3. 부활 축하식; 아동 친선게임 주일 오후 2~5시
 각 공소 아동들도 참석 바람
4. 아동 성세식; 부활 공식 미사 중
5. 신용조합 <임원회> 4월 5일 <월례회> 4월 13일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훈
 사도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공식 미사 후

2. 복자 부녀회 월례회; 오늘 없음
3. 영세하신 분들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성미; 2말 4되 계; 371,9되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이거영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저녁 미사 후
2. 4월 1일12반 회합; <8시 30분 정각>
 3월22일밤12반 회합 못함 사과드립니다.
 4월 2일6반 회합(8시 30분)
3. 애령회 발족 4월 중순계.
 차후 "순정이"에 발표하겠습니다.
 판공시 특별 봉헌; 7,300원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환철
 사도회장 이현재

1. 글라라 형제회; 오후 1시 30분
2. 미사 시간 변경; <주일> 5시 30분, 9시, 10시,
 저녁 8시 <평일> 아침 5시 30분 <월, 화, 목, 금>
 저녁 8시 <수, 토> 학생은 토요일 오후 5시.
3. 61주년 기념 추진 위원회에서는 기념 헌수 은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 교구청 순회교육; 4월 6일 10시~4시까지
5. 어린이 첫 영성체; 4월 6일 <9시> 아동 미사 때
 ※신용조합 전화시설 ② 4530
 ☆성서 판매소, 혼인 상담실 ② 2628

금주의 숭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박 춘 영 (젬마) 기전 여중 선생님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창 계 안 인 음 부 부 신 태 인 음	교회 담장 쌓기 운동 협조 요망	3,205원	제 3 지구	주 현 동 창 인 황 등	부활절 성경 경시 대회	37,770원 34,515원
		부활절 친목 구기대회	16,180원			사부 헌장 순회 교육	
		테레사 미니스장 개장 예정 부활을 뜻있게 보냅니다	6,180원			부활을 뜻있게 보냅니다	
			17,240원				
제 2 지구	대 아 야 동 월 명 동 중 동 열	사도회 임원 총회	2,870원	제 4 지구	중 앙 노 송 동 덕 진 서 학 등 전	사도회 월례회	57,876원 25,355원 10,615원 17,305원 15,115원 57,081원
		새 영성자들에게 축복드립니다	36,810원			성 안토니오 재속 형제회	
		사도회 부활 축하 회식	23,190원			부활 축하 아동 친선 게임	
		냉담 교우분들의 회개 축하합니다	16,005원			사도회 월례회	
장당 추진 위원회 구성	14,660원	애령회 발족 예정	15,115원	교구청 순회 교육	57,081원		
제 3 지구	고 산 금 여 산 산	의자 사업 완료	2,970원	제 5 지구	남 원 무 주 장 진 준	성모회 월례회	11,645원 5,005원
		친목 체육대회	13,313원			부활을 뜻있게 보냅니다	
		주일 학교 개학식	5,000원			각 공소 대항 배구대회	